

월요광장

광주·전남의 과학기술, 이대론 안 된다



김병식

초당대 총장

오늘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은 국가과학 기술력의 복원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있다. 과기부, 경통부 등 과학기술 관련 중요 부처를 폐지하여 국가 과학기술을 소홀히 다룬 낭패를 본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한, 잘된 결정으로 보인다.

3주 전인 지난달 30일, 우리는 그동안 남의 나라의 일로만 여겼던 인공위성의 발사 광경을 우리 지역, 고풍 땅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저 하늘 높이 시원스럽게 솟아오르는 나로 호를 보면서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가 진정 과학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지금 새삼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변화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국토의 서남쪽 우리

'광주·전남 과학 기술계의 현실'에 걱정되는 바가 되짚어 보고 싶어서이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과학과 관련해 똑똑한 정부 출연 연구원 하나가 없다. 이는 변변한 국가적 규모의 연구시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결과를 내는 고통교기관도 태부족이다. 이런 사실은, 짚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큰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기업은 인재 확보를 핵심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 지역 과학기관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번에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로 국내외에서 과학 분야의 수장적인 유능한 총장을 영입하는데 꼭 필요했던 연봉 상향조정에, KIST 경우와는 달리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그 핵심이 되는 설비인 중금속 가속기를 어느 지역에 두느냐를 두고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과 경쟁을 했던 영남, 충청권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인프라, 정책, 환경, 의지력 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뒤늦게 참여한 경쟁이었고 해서, 부분적 성과에 만족해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의 훌륭한 과학자들이 중앙에 포진하고 있고, 김운태 광주시장의 열정과 나름대로 우리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그래도 다행이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 기술력의 핵심은 우수 인력과 연구 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이다. 인프라 즉, 시설은 재정의 문제이고 우수 인력은 교육의 문제이다. 인프라는 중앙정부와 치밀하면서도 전문적인 협의아래 지원을 이끌어 내야하고, 우수인력은 우리의 열정과 지혜, 투자로 확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 내 이과대, 공과대학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 걱정이다. 많은 학과들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공대, 자연과학대에 입학하려는 신입생이 급감하여 많은 학과가 폐과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적령인구의 감소,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교육비, 신입생의 선호도와 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의 과학정책 전환의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세계적 위상에 걸 맞는 과학기술이 우리 지역에서도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 사립대학의 연구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삼 지역활필도 없이 지역대학의 교수들의 연구능력이 유난히 부족한 것도 아니다.

사실, 지역에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의 산업, 환경, 건축, 에너지관리, 통신 등 많은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여 질 높은 삶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차원의 기술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고비용의 첨단연구는 아닐지도 기초 및 교육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꼭 지켜야 한다.

과학시대,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대책이 꼭 필요하다. 공학기술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관련 연구를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자체의 본정에 능력 있는 과학관련 전문가를 모아, 더 늦지 않게 '종합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광주·전남 과학기술촉진위원회'의 구성 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과학정책 전환의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세계적 위상에 걸 맞는 과학기술이 우리 지역에서도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결 과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바 '국민 불안도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 한일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 현실은 하나님같이 버겁기만 하다. 안으로는 저 성장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은 좁쳐렵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도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국내외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21일 확정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등 핵심 대선공약의 일부가 후퇴한 것은 우려

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또한, 국민대 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지역간 화합 등의 해법도 서둘러 찾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야기된 안보 불안도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 한일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호남에 대한 차별은 이제 과거의 잔재로 남아야 한다. 이번 내각인사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배제돼 박 대통령의 대량평인사를 굳게 믿었던 호남인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일고 있다.

국민대통합의 단초가 호남인재의 중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실폐'로 귀결되는 것도 철저한 호남 출대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적어도 예산과 공약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호남을 출대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지 않는가. 아울러, 5년 뒤 오늘 새 정부가 온 국민의 축복 속에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인천 F1 건립 추진 "같이 망하는 건가"

인천시의 '레이싱 라이스포타일 클럽' 조성 계획에 대해 전남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터스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2개의 F1사업은 예산 낭비이며, 전남 F1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영국계 투자사인 웨인코로우 파트너스와 인천공항 인근에 F1을 중심으로 한 레이싱 클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이 5km 1km 레이스트랙과 트레이닝 센터 등을 건립해 오는 2016년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전남도 F1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도는 F1 대회를 기반으로 영암 서킷 일대를 모터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인천이 뛰어들 경우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또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 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 인천 F1 경주장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전남도가 F1을 재유치하는데도 결집들이 될 수 있다. 인천이 대회 유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 F1 서킷이 건립되면 대회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 성능검사 등 서킷 입대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영국계 투자사인 웨인코로우 파트너스와 인천공항 인근에 F1을 중심으로 한 레이싱 클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이 5km 1km 레이스트랙과 트레이닝 센터 등을 건립해 오는 2016년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전남도 F1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도는 F1 대회를 기반으로 영암 서킷 일대를 모터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인천이 뛰어들 경우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저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인천시의 F1 경주장 건립은 전남도의 F1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국가적으로 중복되는 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풍 출신인 송영길 시장이 전남도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해치고 국력을 낭비하는 자자체간 경쟁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

無等鼓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 (12개 부문). 이 작품으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나의 원발', '데어 월비 블러드'에 이어 세 번째 남우주연상을 노리고 있다. 또 바다에서 함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흐랑이 파커와 소년 파이의 이야기를 그린 '라이프 오브 브이'는 11개 부문으로 뛰어들었다.

여기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ブル'도 작품상 등 7개 부문 후보에 올라, 낙점은 기다리고 있다.

25일 오전 10시부터 케이블 채널 CGV를 통해 생방송되는 이번 아카데미 수상작은 오후 2시면 모두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부문이 있다.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이다. 지난 2004년 박세종 감독의 '죽! 생일'에 이어 두 번째로 후보에 오른 이민규 감독의 '아담과 캐'가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을 기대해 보자.

올해 가장 많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김미은 문화 1부장 mekim@kwangju.co.kr

법조칼럼

어느 피고인의 편지



신희영

광주지검 형사1부 검사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편지를 받게 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었다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사실에 왔다. 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두 번이나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에 구속된 터였다. 날이 선 말투로 범행을 주고받은 차운 눈길로 그를 대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형이 2배가 가중돼 그에게 구형 가능한 형의 최하한이 징역 20년이었고, 필자는 법대로 구형했다. 쳐리해야 하는 많은 다른 사건들에 밀려 그 사건은 그리고 그는 오래지 않아 내게 잊혀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지금은 많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교도소에서 피고인들이 보내는 반성문과 같은 편지는 드물지 않게 받아왔으므로 별다른 감흥 없이 편지를 서랍 속에 넣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에게서 또다시 편지가 왔다. 여전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한 달 후에도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도 그는 계속 편지를 보내왔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 항소심에서

법원을 부인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교도소 안에서 겪는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적어 보내왔다. 교육을 받게 된 이야기, 체육대회 이야기도 있었다. 처음에는 필자가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다.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겪어온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비웃기도 하지만, 그를 대체로 구형했다. 그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양 줄었던 것은 아닐까. 그에게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까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말투와 눈빛이 그가 사회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

원주를 떠나 이곳 광주로 오면서 그에게 답장을 썼다. 지금 각오 그대로 건강히 출소해 사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심히 담아 몇 권의 책과 함께 그에게 보냈다.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제 그 인연이 끊어졌으리라 생각했는데 그의 편지는 광주에까지 이어졌다. 한 달에 한 번, 편지 속의 그는 여전히 씩씩하고 반성한다. 필자는 모범적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를 늘 응원하고 있고, 감사를 전하는 그에게 도리어 감사한다. 필자를 좋게 기억해줘 진심으로 고맙고 송구하다.

그는 필자를 많이 변화시켰다. 그가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쓰며 지난은 시간을 반성하듯 그의 편지를 받고 스스로 돌아본다. 오늘 검사실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마음이 다쳐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필자는 어떤 검사였다. 부족함을 실감하며 이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애써본다.

레슬링 올림픽 퇴출 재고해야



장조웅

광주레슬링협회 이사·다인산업 대표

레슬링은 인류와 역사를 함께해온 유서깊은 스포츠다.

기원전 1만5000년 전에 그려진 프랑스 동굴벽화엔 레슬링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이집트 베니사산묘에는 약 400개의 레슬링자세가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을 정도다.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야곱이 천사와 싸움(레슬링)을 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레슬링은 인류의

수렵 본능을 가장 잘 구현하고 무기 없는 원초적 전투력을 대표 종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한 열악한 국가에서 스포츠장려에 1순위로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고 고가의 장비나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아 땀흘린 민족 결실을 보는 종목이다. 역사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올림픽 5종 경기에는 경기, 도약, 투창, 투원반, 레슬링이 있었다.

현재 레슬링 강국은 러시아, 미국, 터키, 일본, 아랍 순인데 안타깝게도 레슬링 강국이 올림픽 IOC 위원회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기가 있고 돈이 되는 종목을 원한다면 아마추어의 모든 종목이 퇴출 대상이다.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레슬링선수는 지난해 12월 등록 1324명이다. 그 중 광주·전남 선수들이 전국에서 가장 강하고 레슬링 메달 가능성이 있는 선수 또한 가장 많다.

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레슬링 퇴출 보고서 사유엔 "인기가 없고 돈이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이 사유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각종 통계에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는 것처럼 레슬링보다 훨씬 인기가 있고 돈이 되는 종목이 버젓이 올림픽종목에 살아남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올림픽위원회의 종목 퇴출 기준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차이가 있다.

현재 레슬링 강국은 러시아, 미국, 터키, 일본, 아랍 순인데 안타깝게도 레슬링 IOC 위원회에 있다. 정부가 레슬링 종목을 '인기없고 돈이 되는 종목'으로 퇴출시켰다면 정확한 시청률, 관객 수, 연맹가입국 등 조사의 통계 자료를 통해 인기없는 종목을 먼저 퇴출시킨 후 레슬링을 퇴출하라고 말이다.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라"고.

레슬링선수라면 누구나 안다. 마지막 경기 종료 1초 전이라도 5점의 점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럴 때 일수록 선수들은 묵묵히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번복될 수밖에 없다. 올림픽 참가자 피에르카르데르탕이 올림픽 강령을 통해 밝혔듯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에 있듯이, 스포츠 또한 승리가 아니라 참가에 있다.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차제에 올림픽위원회에 묻고 싶다. 오랜 전통성을 가진 레슬링종목을 '인기없고 돈이 되는 종목'으로 퇴출시켰다면 정확한 시청률, 관객 수, 연맹가입국 등 조사의 통계 자료를 통해 인기없는 종목을 먼저 퇴출시킨 후 레슬링을 퇴출하라고 말이다.